

지역 소식통

김제시, 2024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김제시는 2024년 하반기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전년 동기 대비 1억 3,300만원 증가한 2억3,4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제 정리가 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기간동안 체납 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로 체납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해 적극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했다.

또한 차량, 부동산, 예금 압류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무재산, 평가액 부족,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실시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올해 한 달 남은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김제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주의 당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1월 동절기를 대비한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에 이어 급격한 온도 하강이 빈번한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시는 상수도 동파에 대비해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장비를 확보했으며, 동파 방지를 위한 수도 계량기 보온조치 및 주민 행동 요령을 강화 하고자 홍보자료 8,000매를 제작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또한 동절기 동안 상하수도과, 수자원공사 현대화사업소, 대행업체와 수도 피해시설 긴급복구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운영중이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 수도물 사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 상하수도과에 신고하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통령 불법 계엄선포 규탄”

완주군의회, 모든 의회일정 중단·서울행 버스 올라... 국회 집회 참석·퇴진 요구 등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4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원회를 속개해 정회를 선언하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완주군의회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종료로 4일 운영위원회 2차 회의와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계엄해제 등으로 국회로 올라가기 위해 오전 7시 40분경 해당 상임위원회가 각각 개최와 함께 정회를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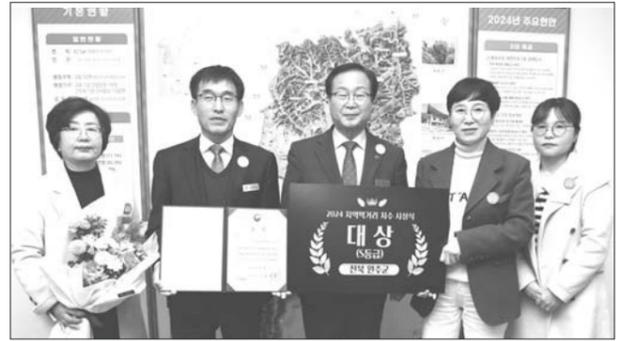
유의식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적인 계엄선포로 완주군민들의 비뚤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의회 일정을 중단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4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원회를 속개해 정회를 선언하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하게 됐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차후 회기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국회 집회 참석 후 군민들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24년 지역먹거리 지수평가에서 5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완주군, 먹거리 지수 5년 연속 ‘대상’

농식품부 평가서... 공급 실적·탄소감축·도농상생 등 ‘호평’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24년 지역먹거리 지수평가에서 5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과 소비자시민모임이 평가하는 ‘지역먹거리 지수평가’는 지역별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평가 대상이다.

올해 완주군은 로컬푸드 공급 실적, 탄소감축 실천 노력, 도농상생 협력, 먹거리복지 등 각 분야별로 높은 점수를 받아 먹거리지수 분야 단연 최고의 지자체로 평가 받았다.

완주로컬푸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개장을 시

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급식분야와 농가레스토랑을 포함한 로컬푸드 관계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다.

11월 기준 로컬푸드 관계시장 누적 매출액은 7,000억 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5년 연속 대상이라는 눈부신 성과는 성공적인 먹거리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의 협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로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세무서 신설 촉구 서명운동 전개

지역발전 속도에 맞춘 효율적 세무 행정서비스 필요성 대두

완주군이 ‘완주세무서’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완주군은 가파른 경제 성장세로 세무 민원 역시 늘고 있지만 세무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1월 말 기준 완주군 인구는 9만 9,105명(외국인 포함 10만 3,799명)이고, 사업자 등록 수는 1만 8,806건에 달한다. 완주군에서만 지난해 국제 5,598억 원이 징수됐다.

현재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분양 등으로 관내 사업체 수가 도내 군 단위 평균의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수소특화 국가산단까지 조성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완주군은 완주세무서 신설을 위해 중앙부처, 정치권에 적극적인 건의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청원 월례조회에서는 유희태 완주군수, 문성철 완주부군수를 비롯

해 직원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완주세무서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서명지를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출해 완주세무서 신설을 바라는 완주군민의 염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세무서 설치는 단순한 행정 기관 추가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다”며 “지역발전의 속도에 맞춘 효율적인 세무 행정서비스를 위해 완주세무서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3곳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3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을 수행할 3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개최됐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3개

기관(김제노인복지센터,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성암노인복지센터)을 대상으로 공신력, 지역사회 네트워크, 효과적 사업수행, 행정처분 등의 항목을 심사해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제일의 어르신 섬김도시 김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아주 특별한 수업 진행

초등생 독서습관 형성 위한... 조혜란·박모 작가 만남

김제시립도서관은 초등학생들의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12월 ‘도서관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수업 시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주 특별한 수업 시간은 지난 11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되며 사전에 신청 받은 초등학생도 도서관과 작가가 직접 방문해 학생들과 만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달에는 조혜란 작가와 박모 작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손바닥 정원 만들기를 만들어보고, 그림책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과 만날 예정이다.

조혜란 작가는 오는 9일 월요일 10시부터 김제 감삼초등학교에서 ‘작가님 어디가요? 상추밭에 간다’란 주제로

학생들을 만난다. 작가는 2024년 초등 2학년 계절 교과서 수록 작가이며, ‘상추씨’, ‘노랑이들’ 등 다양한 도서를 집필했다.

박모 작가는 오는 13일 금요일 10시부터 김제 동초등학교에서 “(모모모모) 그림책 창작 이야기”란 주제로 학생들을 만난다. 작가는 볼로냐 라가치 상 스페셜 멘션 논픽션 부문 수상 작가이며 “모모모모모”, “사랑은 123” 등 도서로 많은 독자들과 사랑을 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창작의 세계를 깊게 이해하고 미래의 꿈을 크게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